



2022. 12. 5 (월)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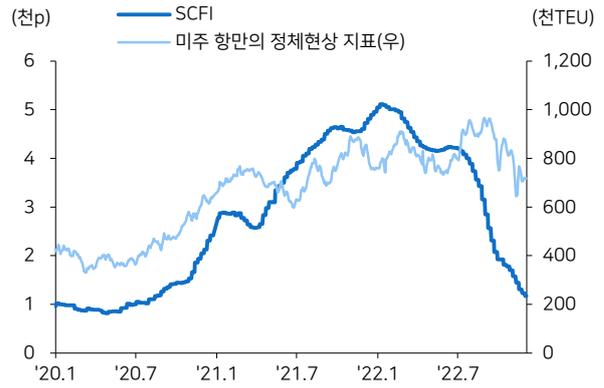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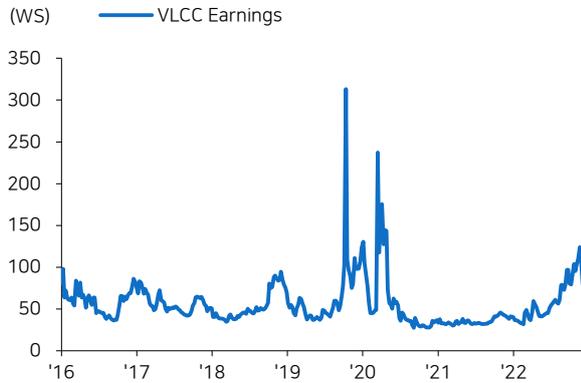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24.0p(-1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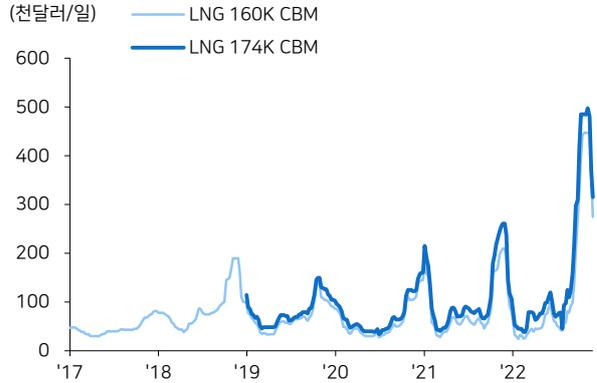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71.4p(-58.5p WoW)



VLCC Spot Rate 79.6p(-28.0p WoW)



LNG Spot 운임 275.0p(-90.0p WoW) 315.0p(-5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57.8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61.9p(+0.1p DoD) 98.0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유럽 비판에도...OPEC+, 하루 200만 배럴 감산방침 유지

OPEC+가 하루 200만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향후 원유 시장을 관찰하면서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함. 지난 10월 회의에서는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배럴 줄이고 이를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현재 OPEC+ 원유 생산량은 10월보다 200만배럴 감소한 4,185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짐. 한편, 다음 OPEC+ 정례 장관급 회의는 2023년 6월 4일로 알려짐. (연합뉴스)

러 유가 상한제 도입 앞두고 덩치 불어나는 '그림자 선단'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 100척 규모로 꾸며지고 있다고 보도됨. 5일부터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매입해야 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2022년YTD 중고 VLCC 84척 매매

VesselsValue 집계에 따르면 중고 VLCC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2022년 기준 매각된 VLCC만 84척인데, 평균 선령은 14년으로 알려짐. Gibsons에 따르면 2022년 1월대비 15년생 VLCC 가격이 약 50% 상승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Hundreds of 'unknown' owners take control of tankers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400척의 유조선이 신원미상의 선주 또는 신생 선주에 판매되었다고 보도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침공 이후 중고선가가 폭등했고, 유조선 운임은 1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됨. 위 유조선들은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데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됨. (Tradewinds)

Freeport LNG restart pushed back to year end

Freeport LNG 재가동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한다고 보도됨. 몇 주 전 12월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6월 폭발사고 이후 안전문제로 정부 승인이 늦춰져 가동시점이 미뤄져 왔지만, 이제 가동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알려짐. LNG 수출은 2023년에 재개될 예정임. (Upstream)

'시진핑도 '방역완화' 시사"... 中,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로 선화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해졌다고 보도됨. 시진핑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봉쇄 규정 완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알려짐. 베이징은 5일부터 지하철, 버스 탑승 시 PCR 음성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됨. 지난 1일, 주일 중국대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중·일간 인원 왕래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세계일보)